

주거, 근로, 복지, 교통에 대한 기초 욕구를 해결해주고자 2005년부터 국가정책으로 추진하여 시범사업과 정책기반구축 등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아름마을 가꾸기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와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지역특성화, 지역자산 조사, 지역내외 자원 활용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지자체, 중앙정부 간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산림청 산촌 생태마을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농림수산물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이 있다.

<표 22> 생태문화도시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비고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시티 시범사업 ✓ 그린시티 ✓ 자연생태 우수마을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Eco city ✓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마을 가꾸기 ✓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수산물식품부) ✓ 산촌 생태마을 조성(산림청) ✓ 문화역사마을 가꾸기(문화체육관광부) 	

국내외 법률, 제도, 기관별, 지역별 사업 등 동향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생태와 문화를 융복합적으로 접근하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태문화란 생태학적 원리와 문화적 원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개념을 말한다.

즉 자연생태계에서 나타나는 생태적 구조와 기능 등의 생태학적 원리와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문화적 현상이 상충되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융복합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다른